

11월 11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1월 11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
뉴욕 하락.. 기업발 악재 만발-中 부양책 단명 [다우: 8,870.54pt (-0.82%)]	뉴욕 증시는 4조위안(5,860억달러)의 중국 경기부양책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의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에 대한 구제금융 확대를 호재로 급등세로 출발했으나, 서킷시티의 파산보호 신청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제너럴모터스(GM)에 대한 부정적 전망 등 기업발 악재로 경기후퇴(recession)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점차 상승폭을 줄이다가 오후 들어 하락세로 물러섬.
‘파산보호 신청’ 서킷시티	미국 2위 전자제품 유통업체 서킷시티(CC)는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60% 폭락. 서킷시티는 신용위기와 베스트바이, 월마트 등과의 경쟁심화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다 결국 파산보호를 신청. 이날 서킷시티가 버지니아주 연방 파산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킷시티의 자산은 34억달러, 부채는 23억2,000만달러.
美, AIG 구제안 새로짚다	미국 정부는 AIG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함. TARP 통해 400억불 우선주 매입과 연준 대출 규모를 850억불에서 600억불로 축소하기로 함. 또한 뉴욕연방은행은 부실자산을 사들이는 별도의 2개 기구를 통해 525억달러를 대출 계획.
유럽증시, 中경기부양책 기대감에 상승 마감	유럽 증시가 중국의 6,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기류를 타고 상승 마감. 10일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의 FTSE 100지수는 0.89% 상승한 4,403.9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으며 프랑스 파리증권거래소의 CAC지수는 3,505.75로 1.06%,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의 DAX지수는 5,025.53포인트로 1.76% 각각 상승.
아시아증시 급등...중국, 홍콩 경기부양책에 폭등	오늘(10일) 도쿄증시에서 닛케이 평균 주가지수는 지난 주말 미국 주가 상승과 외환 시장에서의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 관련주가 크게 오르면서 한때 500포인트를 넘어서는 등 폭등. 중국 증시는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상하이종합지수가 1,874.8로 마감하면서 7.27%가 올라 단숨에 1,800선을 회복했고, 홍콩 항셱지수도 14,744로 3.52% 상승.
中, 1,000억위안 규모 추가 투자 추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당국이 1,000억위안 규모의 새로운 정부 투자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10일 신화통신이 보도.

제목	주요 내용
금융위, 헤지펀드 파생 투자한도 규제	내년 도입 예정인 헤지펀드의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금융당국이 제한키로 함. 이로 인해 헤지펀드는 투자자산에 대한 규제 등이 계획보다 강화됨.
외화예금 10월중 10.4 억달러 증가	한국은행은 11일 '2008년 10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을 통해 10월 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243억1,000만달러로 전월 말(232억7,000만달러)에 비해 10억4,000만달러 증가했다고 밝힘.
헤지펀드 제한적 도입	금융위원회는 10일 헤지펀드의 파생상품 투자한도와 금전차입, 채무보증 등과 관련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힘.
3개월물 FX스왑 20억 입찰	한국은행은 오는 11일 만기 3개월물 외환(FX)스왑 20억달러에 대해 경쟁입찰 함.
국제유가, 中경기부양 책 영향 상승..WTI 2.2%↑	세계 두 번째 원유 소비국인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5,000억달러 이상을 쏟아 붓기로 한 데 대한 기대감이 유가 상승을 견인.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 종가보다 1.37달러(2.2%) 오른 배럴당 62.41 달러로 마감.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